

■ 월드워치연구소(WWI), 환경과 고용에 관한 연구결과 발표

- 美 월드워치연구소(WWI)⁵⁾는 “환경관련 업종의 고용창출 효과”에 관한 연구 수행 결과를 지난 주 발표함
 - 지속 가능한 경제로의 전환이 전세계적으로 높은 고용창출 효과를 가져왔다고 결론을 내림
 - 환경친화적 경제가 광업, 임업 등 전통적인 산업에서 실업을 증대시킨다는 일부 주장을 반박하고 있음
 - 오히려 재생에너지, 에너지 효율화, 환경친화적 설계 등 신규 수요로 인한 순 고용창출 효과가 더 크다고 함

- 지속 가능한 경제로의 전환을 통해 전세계적으로 이미 1,400만의 고용이 창출되었음
 - 그 중에서도 대체에너지 산업, 재활용 산업 등이 높은 고용창출 효과를 보이고 있음
 - 풍력발전 관련 종사자는 1999년에 86,000명에서 2000년 현재 두 배로 늘어났고, 2020년에는 풍력이 총 발전량의 10%를 차지하여 170만의 추가 고용 효과가 예상됨
 - 태양광발전 관련 종사자는 미국에서 20,000명, 유럽에서 10,000명 이상이며 2010년까지 정부 지원 강도에 따라 70,000~250,000명의 증가가 예상됨
 - 재활용 산업은 전세계적으로 매년 6억 톤 이상을 처리하고 있으며, 150만명 이상이 종사하고 있음
 - 재제조(remanufacturing) 산업은 미국에서 이미 연간 530억 달러 규모의 시장을 형성하고 있으며 美 철강업의 두 배인 48만명의 고용을 유지하고 있음

- 동 연구는 벌목, 탄광 등 채굴업이 사양산업화 되는 것과 관련, 환경규제 강화 이외의 원인들을 지적하였음
 - 자동화, 기계화 진전에 따른 위기가 이미 확대되어 왔음
 - 이로 인해, 1980~1999년 사이 미국의 석탄 채굴은 32% 증가했지만

5) Worldwatch Institute

고용은 66% 감소했으며, EU의 화학산업에서는 1990~1998년 사이 생산은 25% 증가한 반면 고용은 14% 감소했음

- 환경수준이 낮고 청정기술 혁신이 지체된 분야의 직종은 안정성이 떨어짐
 - 기존의 일방적 대규모 원자재 개발과 처리 그리고 대규모 폐기물 양산 방식은 구조조정을 야기할 수 있는 위험이 상존하고 있음
 - 자원 사용 효율화로 전세계적으로 수천억~수조 달러의 연료, 원자재 구매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이런 절감액을 환경친화적인 부문에 투자함으로써 상당한 고용을 창출할 수 있게 됨

○ 에너지 활용에 대한 기업 정책 및 조세 정책을 합리적으로 전환할 것을 요구함

- 기존 기업들은 인건비 절감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추구해 옴
 - 지속 가능한 경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에너지 및 원자재 사용 절감을 통한 경쟁력 강화가 요구됨
- 현행 稅制는 에너지 과다 사용을 조장하고 고용 창출은 저해하고 있음
 - 따라서 자원 사용과 오염 유발에 대한 세금을 올리는 반면, 근로소득세는 낮추는 것이 바람직 함

김성철(sckim@hri.co.kr, 3669-4110)